

지역 매아리

부안해경, 고창 국민방재대 교육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고창 구시포항에서 국민방재대 약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6일 고창 구시포항에서 실시한 국민방재대 방재교육(훈련)은 대원들의 초동방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방재자재(오일펜스 등) 특성 및 사용법, 해양오염 사고사례 및 해양환경관리법 주요내용, 국민방재대 운영상 문제점과 건의사항 수렴 등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 훈련을 통해 방재능력을 배양시켰다.

열해구 해양오염방재과장은 "교육 훈련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시 민간 방재세력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관내 방재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 해경 국민방재대는 각 어촌계 관할 항 포구와 인접한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어민이 자발적으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동참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가꾸고자 2010년 국민방재대로 조직된 단체로서, 부안 해경 관할에는 변산·고창·위도 국민방재대 등 총 3개소, 대원 37명, 선박 36척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명덕경로당서 뇌운동프로그램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연지동 명덕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뇌운동프로그램'을 10회기에 걸쳐 진행한다.

뇌운동프로그램은 사전조사(치매선별검사, 노인우울검사, 주관적 기억감퇴평가)를 마치고, 이달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회기에 걸쳐 매주 목요일 운영된다.

프로그램에서는 스티커 붙이기, 종이 접어 가리기, 구멍 판에 색칠 끼우기 활동 등을 비롯 다양한 내용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남력(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과 기억력, 시지각력, 집중력, 계산력, 문제 해결력, 일상생활 활동, 회상 능력 등 어르신들의 8개 인지 영역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치매 관련 궁금한 부분이 도움에 대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539-6767)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브랜드인증사업 활성화

로고 사용 후 판매량 약 15% 증가... 지역소득 증대 기대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이를 활용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인증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인증사업'은 지난 2014년 시작해서 지역 농·수산업자들이 수박, 멜론, 블루베리, 복분자 등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을 받아 현재 45개 업체 160개 품목이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으로 브랜드 활용업체의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로고 사용한 후 판매소득을 조사한 결과 지역 특산물인 수박, 블루베리, 복분자 등 로고를 사용한 후 해당 업체들의 판매량이 약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창군이 친환경적이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효

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 대상 기준은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특산물을 판매·유통하거나, 고창산물을 주원료로 70% 이상 활용하고 제조하는 가공품을 생산하며, 공인기관에서 친환경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을 취득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증신청접수는 연중 가능하다.

브랜드인증 신청서에 1차산업 또는 2차산업 경우에 필요한 첨부 서류가 기재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생물권보전사업소(063-560-2690)에 문의하면 된다.

생물권보전사업소 관계자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을 통해 국내·외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겠다"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강화하고 고창군에서 생산된 농·특



산물을 소비자들에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신속한 수거·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한다

정읍시,음식물 쓰레기 특별 관리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특별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기여하고 있다.

시는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여름철 채소와 과일류 소비 증가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공동주택과 음식점은 물론, 내장산국립공원과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등 지역 내 주요 피서지를 중점 관리한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2개 조의 기동 처리반을 운영한다. 읍



면지역은 2개조, 동지역은 4개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이들 기동반을 활용해 민원당일처리제도(오후 6시까지 접수된 민원)도 운영한다.

피서지에 수거 용기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특별대책 기간 중 음식물쓰레기 증가에 따른 수거 지연 방지, 배출 지 주변 악취·해충발생 예방에도 주력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초산동주민센터 주변 공영 주차장 이달 본격 개장

초산동주민센터 주변에 공영 주차장(시거동 513번지 일일)이 들어섰다.

3억7,000만원이 투입된 공영주차장은 부지 439㎡에 승용차 주차 12면 규모다.

시에 따르면 그간 주민센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

원인들의 이용 불편이 컸다. 특히 이면도로와 천변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될 상황이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어 개선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본격 개장하면 이러한 불편과 사고를 막아줄 해소될 전

이와 관련, 시는 공동주택과 음식점 등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용기 세척과 소독을 월 4회 이상에서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도 대비해 수거 용기와 보관시설 등에 빗물이 스며들어 음식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와 지붕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야채 등의 수분만 줄어도 많은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계획적으로 식단을 편성하고 과일껍질 등은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망이다. 시는 현재 주차장 조성을 마쳤고 개장 전 잔디를 심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센터 주변 불법 주차차 차량이 감소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제62대 임성재 부안경찰서장 취임

"친절봉사하는 따뜻한 경찰 되도록 노력"

"산·들·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천혜의 사계절 관광지 생거부안에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지만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해 친절봉사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일 제62대 부안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임성재 서장은 "치안 확보는 주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주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내 형제,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봉사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임 서장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처리에 있어 누가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잘된 업무처리도 사후보고가 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아무런 슬

모가 없더라도 업무는 상식이 통하고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서장은 "부안군 전체의 치안책임자로 일하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본과 원칙을 치안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경찰관의 기본"임을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부안경찰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임성재 서장은 전라고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경찰간부 후보 40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임 서장은 관주청 청문감사담당관, 전북청 홍보담당관을 역임하였으며,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업무운을 통해 안정된 지역치안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휴일인 지난 5일 권익현 군수는 주산면·보안면·줄포면 인삼피해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폭염피해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인삼농가 폭염피해 복구 발 벗고 나서

연일 35℃ 넘는 폭염으로 손해를 입은 인삼농가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가 휴일도 잊은 채 적극 지원 및 조속한 피해복구에 발 벗고 나섰다.

휴일인 지난 5일 권익현 군수는 주산면·보안면·줄포면 인삼피해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폭염피해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 폭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부서에 조속한 피해복구를 강조했다.

현재 부안군은 폭염상황관리반을 운영해 피해발생 파악 및 응급복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안전

관리 및 피해예방요령 등을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더욱이 인삼은 관내 재배면적 59ha 중 49ha 가량에서 잎 및 줄기에 고사 현상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폭염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현 부안군수는 "폭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고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행정을 펼쳐 확인하겠다"며 "군민들도 폭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명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